

照明
實錄

太宗과世子 癡立

(제 1 회)

(實錄研究家 · 人間文化財)

李 在 範

1. 실록(實錄)의 뜻

이 기록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실록(實錄) 중 태종(太宗)과 세자(世子)에 관한 기록을 엮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통속적인 전설이나 야사(野史)가 아닌 것이다.

태종 때에 세자폐립(世子癡立)에 관한 풍파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양녕대군(讓寧大君) 제(提)를 세자로 삼았다가 나중에 그를 폐(癡)하여 버리고 제3왕자인 충녕대군(忠寧大君=世宗) 도(禔)를 세자로 세워 그에게 왕위(王位)를 물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자폐립을 둘러싸고 수많은 속설(俗說)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속설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인 양 믿어오고 있는 것은 태종이 처음에는 맏왕자인 양녕으로 세자를 세웠으나 그 후 세째 왕자인 충녕이 너무나 영특하므로 그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져 은근히 양녕을 미워하면서 심한 구박을 하게 되자. 그러한 태종의 눈치를 알아차린 양녕이 거짓 미친 척하여 스스로 세자의 위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속설이 과연 사실인지 여기에서 실록을 조명(照明)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고져 하며, 또한 이에 결들여 당시의 주변 사실들도 함께 적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실록이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 보자.

조선왕조 때에는 춘추관(春秋館)과 예문관(藝文館)을 두어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날마다 일어나는 시정(時政)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사초(史草)라 한다)들을 비장(秘藏)해 두었다가 당시의 군왕(君王)이 승하(昇遐)하면 그 다음 대에 이르러 실록청(實錄廳)을 열어 전왕(前王) 때에 역사를 편찬하여 사고(史庫)에 깊이 보관하게 하였다. 이것이 실록이다.

이렇듯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록

되는 사관의 사초는 그 시대의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이를 열람(閱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였는지 다음에 실례를 들어보자.

태조(太祖) 7년 5월 17일, 태조께서는 춘추관에 영을 내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기록된 사초(史草)를 가져오라 하였다. 그러나 사관 신개(申槩)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이를 거절하였다.

「군신(君臣)의 언행(言行)과 득실(得失)을 숨김없이 바로 써서 당세에는 이를 비장해 두었다가 후세에 이를 남게 하므로써 금세(今世) 군신들로 하여금 감히 언동을 그릇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록(實錄)을 두게 하는 참뜻이므로 실사 군왕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같이 한 나라의 창업(創業)한 태조의 권위로서도 이렇듯 실록(사초)은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양녕대군 제는 8세가 되는 태종원년 3월 8일에 비로소(계(緹))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그해 4월 18일에 <원자(元子)>라는 봉호(封號)를 받았다. 원자 제는 태종 3년 4월 8일에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였다.

입학식의 광경을 보면 원자는 다른 유생(儒生)들과 똑같은 학생복을 입고 먼저 문묘(文廟: 孔子를 비롯한 성현들을 모신 大成殿)에 술잔을 올려 알현례(謁見禮)를 마치고 이어서 스승이 되는 성균관 사성(成均館 司成) 설칭(薛稱)과 사예(司藝) 김조(金稠)에게 폐백으로 명주 한 필과 술(酒) 한 병을 갖추어서 제자가 되는 예를 올렸다. 이로써 설칭은 원자의 좌유선(左諭善)이 되었고 김조는 우유선(右諭善)이 되었다.

그때의 풍속으로는 고려의 유습에 따라 학문

은 산승(山僧)에게 위탁하여 배우게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의 주청에 따라 원자는 성균관에 입학한 것이었다.

2. 세자책봉(世子冊封)

원자 제는 태종 4년 8월 6일에 비로소 왕세자(王世子)로 책봉이 되었다. 태종이 내린 세자책봉 교서(敎書)는 다음과 같다.

「옛부터 제왕이 일찌기 저부(諸副=세자의 별칭)를 세우는 것은 국본(國本)을 튼튼히 하고 민지(民志)를 다지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오즉 제는 적장(嫡長)의 지위에 있으며 그 자질 또한 준수(俊壽)하다고 하나 예의(禮義)와 사양(辭讓)의 길을 알지 못하면 장차 어찌 어진 선비들을 가려서 쓸 것이며, 또한 고훈(古訓)의 진리를 익히지 아니하면 이 또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찌기 취학을 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음에 그간 종친(宗親)과 대신들의 간청도 있었으며 원자, 또한 인효(仁孝)하고 천성(天成)하며 학문이 나날이 깊어가니 가히 저위(儲位=世子位)를 맡김직 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책인(冊印)을 주어 왕세자로 책봉하니 무릇 중외의 신료(臣僚)들을 모든 성의를 다하여 세자로 하여금 덕(德)을 쌓게 하여 태평의 기틀을 세우게 하라」

세자는 열심히 글공부에 힘썼다. 특히 글씨 쓰기를 좋아했다.

세자의 스승인 성석린(成石璘)은 간곡한 진강(進講)을 했다.

『무릇 군왕의 학문이란 글귀를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아니됩니다. 고금(古今)의 치란(治亂)과 인물의 현부(賢否)에 대한 요체(要諦)를 인식하

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왕자의 덕성을 함양하는데 전념하셔야 하옵나이다』

세자는 붓을 들어 <大>자를 40여자를 써서 보이면서 이 글씨가 어떠냐고 물었다. 성석린은 매우 잘 썼다고 칭찬을 하였더니 세자는,

『옛날의 제왕(帝王)중에 글씨를 잘 쓴 임금이었느냐』고 물었다. 석린은 대답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덕(德)을 쌓지 못하여 어진 제왕이 되지 못하였고 송휘종은 실정(失政)을 하여 천하를 잃었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왕에게는 글씨 잘 쓰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오며 글씨보다 학문에 열중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어느날 태종이 세자를 불러 놓고 대답을 한 일이 있었다.

『결주(桀紂=중국의 대표적인 폭군)는 왜 천하를 잃고 외로운 몸이 되었는고?』

『실정(失政)을 하여 인심을 잃었기 때문인가 하옵나이다.』

『그러하다. 결주같은 제왕도 인심을 잃게 되면 하루 아침에 독부(獨夫)가 되었거늘 하물며 과인과 나와 같은 작은 나라의 군왕이 인심을 얻지 못하면 어찌 하루 아침인들이 자리를 보 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 세자는 부왕인 태종의 깊은 관심하에 열심히 학문을 닦아 장차 제왕으로서의 자질을 가꾸어 나갔다.

태종 12년 6월 9일 세자는 19세의 소년으로 경복궁(景福宮) 안에 새로 지은 경회루(慶會樓)의 편액(扁額)을 썼다. (命世子 大書 慶會樓扁) 임진왜란 때에 경회루가 불타버려 지금은 그 글씨를 볼 수 없으나 그가 얼마나 글씨에 능하였

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남대문(崇禮門) 편액이 세자(양녕)의 글씨라는 속설이 있으나 정사인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같이 경회루 편액을 쓴 세자라면 능히 남대문 편액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태종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세자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라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세자가 하루 속히 다음 대의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태종의 이러한 심정은 전술한 절주에 관한 대답에서도 엿볼 수 있거니와 태종 3년 9월 22일에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고 있는 세자를 불러 놓고 하문한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과인의 나이 이미 40이 되어 이렇듯 빈발(鬢髮)이 쉬었구나. 그러하니 원자는 잠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은근히 학문을 닦을 지어다. 원자는 이러한 과인의 뜻을 알겠는가?』

그러나 원자는 그러한 부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 이를 바라본 태종은 김과(金科)를 돌아보며 어안에 실망의 빛을 띄었다.

『슬프구나 저 아이가 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듯 망연히 앉아 있기만 하는구나. 언제나 과인의 뜻을 알아 들으리오...』 (嗟哉 彼童 我強與言 茫然無知 噫 何時而 識理市)

그 때 원자의 나이 열살이었으므로 그러한 질문은 사실상 무리한 주문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러한 하문이 태종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니겠는가. 당시 태종의 심정은 하루 속히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싶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그가 비록 창업(創業)의 기반을 굳히고 왕권

(王權)을 확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하였거니와 오늘날의 보위(寶位)에 앉기까지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과거가 많았다. 고려말기의 중신(重臣)들의 제거를 비롯하여 정도전(鄭道傳)과 이복(異腹) 동생들인 방번(芳蕃)·방석(芳碩)의 살해사건과 동복(同腹) 형인 방간(芳幹)의 유배(流配) 사건등이 항상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책감에 주야로 고뇌(苦惱)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근년에는 거이 해마다 혹독한 한해(旱害)가 계속되어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자 태종의 상실은 더욱 깊어만 갔다.

제왕의 인덕(仁德)여부가 곧 하늘의 뜻이 되어 국민을 잘살게 하기도 하고 혹은 기갈(飢渴)에 굶주리는 흉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당시의 이념이며 신앙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며 도학이념인 동시에 정치철학(政治哲學)이었다.

그러므로 태종은 새나라의 왕권이 기틀을 잡게 되면 곧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군왕의 지위에서 물러서려고 하였다.

그러한 태종의 마음은 6년 8월 18일에 표면에 나타났다. 돌연히 세자에게 선위(禪位=왕위를 물려주는 것)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태종의 고뇌를 살펴보자. 그러한 태종의 고뇌는 한발이 심하였던 7년 6월 28일에 하늘에 고하는 기우제문(祈雨祭文)에 잘 나타나 있다.

3. 고천 기우제문(告天祈雨祭文)

태종 7년, 늦봄부터 계속되던 한해는 6월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다. 산천은 메마르고 초원은

뿌리까지 타 들어갔다. 태종은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 그달 28일에 영의정(領議政) 성석린(成石璘)으로 하여금 원단(園壇)을 모아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게 했다. 태종은 스스로 제문(祭門)을 지어 자책(自責)과 호소(呼訴)를 했다.

이 기우제문은 단순한 제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전술한 <天人感應說>에 따라 태종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른바 <정도전의 난>, <방간의 난> 등으로 피를 나눈 형제를 많이 죽였기에 그는 하늘이 그를 미워하여 한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믿고 이 기우제문에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고 사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간 역사 논쟁에서 전기한 두 가지 난을 놓고 태종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까지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권신(權臣)들이 왕자(王子)들을 끼고 그를 죽이려 하였기에 살기 위하여 부득이 형제까지 죽였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한 편的主장이 옳바른 역사의 진상인가를 판가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제왕의 위에 오르는 것이나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모두가 하늘의 뜻에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 당시였는지라, 이와같이 한해에 즈음하여 하늘에 고하는 제왕의 제문에서 추호라도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전문을 여기에 실는 것이다.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지라, 사람의 잘 잘못은 곧 하늘에 반영되어 천인(天人)이 상응(相應)함이 그렇듯 빠를진데 이제 감히 무엇을 속이리오, 무릇 한건(旱乾=투害)과 수일(水溢=水害)의 재해는 군왕이 반도

(反道)하고 패덕(敗德)하며 난상(亂常)하고 실정(失政)함에 연유한다 하거니와 이제 한낱 과인의 죄로 인하여 무죄한 백성들이 저렇듯 기근(飢饉)에 시달리어 사경(死境)에 이르렀도다.

과인이 원래 덕없는 임금으로 천지의 보우함과 조종(祖宗)의 적덕하에 이나라에 군림한지 수년에 이르도록 한수(旱水)의 재난이 해마다 일어나니 이는 모두 과인의 패덕(敗德)한 소치로써 하늘의 견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이에 스스로의 허물을 자책하여 하늘에 사죄코져 함이며 결코 하늘을 원망함이 아니로다.

지난 무인년(戊寅=태조 7년) 태조가 불예(不豫=病患)할때 정도전(鄭道傳) 등 권신들이 어린 왕자 방석(芳碩)을 옆에 끼고 나의 형제를 해(害)하고저 도모할 제 그 화변이 심히 절박하여 생명을 보존코져 한 돌 의사(義士)와 더불어 병(兵)을 일으켜 난을 제거함에 창양(槍攘=兵亂)의 틈 속에서 동기(同氣=芳審·芳碩)에 해가 미쳐 태조를 놀라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나 이는 절박하게 닥쳐 오는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었지 결코 타심은 없었도다. 이것이 과인의 죄 하나로다. 무인년이 종식한 뒤 적장(嫡長)이신 상왕(上王=定宗)을 추대하여 왕위를 잇게 하니 천하가 다시 안정을 찾았도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간신들이 또 다시 회안(懷安=芳幹)을 옆에 끼고 병난을 일으켜서 우리 형제를 이간케 하였으나 다행히 곧 평정이 되었도다. 이로 인하여 회안은 적소(嫡所=귀양살이)에 가게 되어 위로는 부왕(태조)의 사랑을 얻지 못하며 아래로는 종친(宗親)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과 같이 쓸쓸히 배이게 되었는바 이는 공의(公義)에 따라 부득한 것이어니 감히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러하였겠는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덕이 없음을 스스로 부끄러히 여기노니 이것이 과인의 죄 둘이로다.

상왕(定宗)이 적자(嫡子)가 없으시와 과인에게 이르시되 동모(同母)의 아우이며, 또한 개국정사(開國定社) 때에 공훈(功勳)이 크다 하여 세자를 삼으시고 장차 대통(大統=王位)을 계승시키고저 하시더니 갑자기 전위(傳位)를 하시고 말았으니 보령(寶齡)이 높지도 않으시고 병환에 계신 것도 아니오며 더욱이 나라에 변고가 있는 것도 아니온 데 중한 책임을 과인에게 넘기시고 선위(禪位)를 하였으니 그것이 과연 상왕의 진심인지 아니면 군정(群情=大臣)의 꾀박에서 그러하였는지 과인은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하도다 이것이 과인의 죄 셋이로다.

이렇듯 과인의 죄가 세가지에 달하여 부자형제와 군신훈구(君臣勳舊) 간에 모두 그 도를 잃게 하고 그 선처를 얻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는 모두 과인이 덕이 없는 소치로서 하늘에 죄를 얻은 바 되어 재앙과 견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나 다만 과인의 죄로 인하여 이나라,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며 산천의 초목들이 모두 초췌(樵悴)하게 시들으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듯 해를 받아야 한단 말시오. 하늘은 이미 과인에게 한 나라의 통치권을 주었것만 어찌하여 지난 날의 죄를 풀지 않으시고 과인 한 몸으로 인하여 일국의 창생들을 병들게 하나이까 오직 하늘에 비유나니 밝게 살피시와 과인의 정성을 헤아리시고 이나라에서 재앙을 걸우시와 백성들을 병들게 하지 마옵소서.

과인의 수명(壽命)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과 왕위에 몇해를 더 머물게 하는 것 따위는 오직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이오니 부디 감우(甘雨)를 내리시와 시들은 초목들을 넉넉히 적시

게 하여 백곡(百穀)이 풍양(豐穰)하고 만물이
 소생하여 홀아비 과부이며 외로운 아이들과 모
 든 생명(生靈)들이 삶을 얻게 하여 배불리 먹
 게 되고 천수(天壽)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기를
 지원(至願)할 뿐입니다. (享年長短 在國久近
 惟天所命 不敢有祈 時賜甘雨 既優既渥 百穀豐
 穰 萬物咸遂 鰥寡孤觸 飛潛庶類 皆得生育 以登
 富壽之域 不勝至願)

참으로 구구 절절 애절한 제문이다. 이러한
 기우제문을 볼 때 태종이 얼마나 백성들을 곱
 짝히 사랑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이다. 그와 동시에 왕조초기에 일어난 피비린
 내 나는 골육상쟁의 내막들도 이에서 그 단면
 을 엿볼 수 있지 아니한가.

(계 속)

—〈토막지식〉—

◎ 牛乳管理도 컴퓨터로 ◎

지금 英國에서는 컴퓨터화한 酪農管理 시스템으로 6만 5천 마리에 달하는 家畜의 記錄을 處理
 할 수 있고 몇군데의 搾乳場을 同時에 運營할 수 있다.

잉글랜드 中部의 베드퍼셔어에 있는 國立農學研究所에서 開發한 이 方式으로 農場管理者는 컴
 퓨터를 通하여 各 乳牛의 飼料量, 牛乳生産量, 重量, 그밖에 健康狀態等에 関한 正確한 最新情報
 를 얻을 수 있다.

즉 소의 신원을 확인하는 「트랜스폰더」라는 흰띠의 기구를 소의 목에 두른 것인데 이것으로 어
 느 소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고 또 기록된다.

◇ 메이커

RJ Full wood & Bland Ltd
 Elosmore, Salop, SY129 DG
 England.



'88 서울 올림픽 우수로써 영광을